

광주시 2등급·전남도 4등급...희비 엇갈려

권익위, 공공기관청렴도 평가

市, 한 단계 상승 특·광역시 1위
道, 체감·노력도 동반 하락 저조
시·도교육청 나란히 4등급 하위권

전국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 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는 한 단계 상승하며 2등급을 받은 반면, 전남도는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종합청렴도 2등급과 4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제감도 점수 60%, 청렴노력도 점수 40%를 반영하며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을 적용해 종합 등급을 산정한다.

광주시는 최근 2년간 3등급에 머물렀던 청렴도 종합등급을 2등급으로 끌어올리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의 청렴제감도는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2등급 상승했다. 특히 시민의 부패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제감도-부패경험' 항목에서 감점이 줄었다.

광주시 청렴노력도는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 분야 개선, 청렴 교육,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등 평가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부문은 2년 연속 만점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전남도는 청렴제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모두 1년 전 대비 1등급 하락하며 종합청렴도를 끌어내렸다.

특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 내부 청렴제감도 부문에서 인사, 부당 업무지시 등 점수가 타 광역지자체 대비 낮게 나오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1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지난해

와 동일하게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청렴제감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종합청렴도 3등급에 머물렀다. 청렴제감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청렴노력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떨어졌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1등급 하락, 시교육청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시교육청은 청렴제감도 부분이 지난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청렴노력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씩 상승했다. 도교육청은 청렴제감도가 5등급으로 2단계 하락한 반면,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유지했다.

대학은 전남대가 지난해와 같이 2등급,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단계 올라 3등급을 받았다.

광주 자치구에서는 북구가 2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남구·동구·서구는 3등급, 광산구 4등급이었다. 기초의회는 광산구·남구·동구의회 2등급, 북구·서구의회 3등급이다.

광주·전남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에서는 전남개발공사 1등급, 광주시도시공사 3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개발 인·허가 승인지역 임직원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한 '부동산 투기 방지 시스템' 운영 등 시스템을 통한 청렴공감 반부패 시책으로 부패취약 분야 개선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박선옥·양시원 기자



동구형 통합돌봄 서비스 협약 2026년 동구형 통합돌봄 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식이 23일 광주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려 임택 동구청장과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광주시 안심돌봄센터,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목포대·순천대 통합 제동...의대 설립 차질 우려

찬반투표서 순천대 학생 60.68% 반대
목포대는 3개 지역 모두 찬성 과반 ↑
내달 중순까지 2차 찬반 투표 가능성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선결 조건인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양 대학 구성원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 결과, 순천대에서 부결이 나오면서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립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목포대·순천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대학 통합에 대한 구성원 찬반 투표 결과, 목포대는 가결, 순천대는 부결됐다.

앞서 순천대는 투표권자 가운데 교원과 직원·조교의 경우 대상자 절반 이상 투표와 함께 투표자 절반 이상 찬성을, 학생은 투표율과 무관

하게 참여자 절반 이상 찬성을 투표 가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3개 지역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

목포대는 교원·직원·조교, 학생 등 3개 지역 2개 지역 이상에서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고 전체 산술평균 50% 이상을 가결 조건으로 설정했다.

22·23일 이틀간 진행된 순천대 투표 결과, 교원 56.12% (286명 투표 156명 찬성), 직원·조교 80.07% (311명 투표 245명 찬성)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학생은 찬성 38.32% (3천638명 투표 1천336명 찬성·2천62명 반대)에 머물러 최종 부결됐다. 투표율은 교원 91.67%, 직원·조교 92.56%, 학생 57.81%다.

목포대는 교원 87.8%, 직원 81.2%, 학생 67.2% 등 3개 지역 모두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투표율은 교원 81.8%, 직원 69.1%, 학생 55.8%다.

이에 따라 목포대와 순천대는 24일 오후 보성 일원에서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해 2

차 찬반 투표 실시 여부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당초 전남도는 2027년 3월 전남권 의대 개교를 위한 대학 통합 시한의 마지노선을 내년 1월 중순으로 설정했다. 1월 중순에 교육부의 대학통폐합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순천대도 이 시기에 맞춰 구성원 2차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투표에서도 순천대가 부결로 결론날 경우 양 대학이 구성원 투표에서 한 대학만 가결되면 통합 찬성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의대 정원을 배정키로 합의한 만큼 목포대에 정원을 배정하고 대학 통합 절차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이병노 순천대학교 총장은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한다"며 "구성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빛돌이·빛나영 이모티콘' 무료 배포

광주시는 24일 오후 2시부터 시 대표 캐릭터 '빛돌이·빛나영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연말연시 시민들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 공식 카카오톡 채널(채널명: 광주광역시)을 통해 이모티콘 16종을 선착순 5만 명에게 제공한다.

이모티콘은 '새해 복 받으세요', '힘내', '사랑해요', '안녕' 등 일상에서 활용하기 쉬운 문구와 귀엽고 친근한 움직임이 특징이다. 연말연시 인사 메시지부터 일상 대화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친구 메뉴에서 '광주광역시'를 검색해 채널 추가하면 받을 수 있다. 기존 채널 이용자는 채널 차단 후 재추가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내려받은 이모티콘은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박광석 대변인은 "빛돌이·빛나영 이모티콘이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안부 인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 대표 캐릭터가 시민의 일상 속에 한층 가까아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1면 '민주 여성특구 후폭풍'서 계속

그럼에도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지연과 중앙당 승인 절차 등을 이유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확정됐다.

특히 광주시당은 당초 시장위원장 공약으로 '지방선거 1년 전 전략선거구 지정'을 내걸었지만,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당대표 경선 등의 일정이 겹치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장기간 선거를 준비해 온 해당 선거구 남성 예비후보들은 제도 변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채 출마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광주시당은 여성특구 지정과 비례대표 제한 경쟁에 대해 중앙당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중앙당으로부터 최고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해석 요청과 회신 과정 역시 지난 22일에서야 이뤄졌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둘러싼 결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광주시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청년경쟁선거구(청년특구)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청년 제한경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구 출마 기회는 열어두지 않은채 비례에만 청년 몫을 한정한 것이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결국 선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향후 실제 공천 과정에서 추가적인 잡음이 불가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결정은 당내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판"이라며 "성급한 결정으로 전략적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을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병노 광주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광주시당 운영위원회 의결의 전제가 변동된 상황인 만큼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의 혼란과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최은정(710918-*****)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서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광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5년508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강영준

○한정승인수리일: 2025년 12월 18일

○공고기간: 2025년 12월 24일 ~ 2026년 2월 24일

○연 락 처: 나주시 반남면 석천로 26-10 (010-8383-5718)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면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층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CMYK